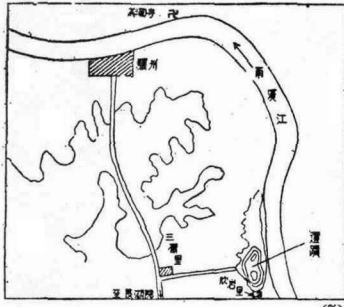


굵은 砂粒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間間 灰色系의 色調를 가진 破片도 있다. 器壁의 두께는 〇・七부터 一・〇cm 程度の 여러 가지가 있는데 〇・七、〇・八程度가 主流가 된다. 모두 손으로 빚어 올린 것이며 漢江邊의 다른 櫛文土器遺蹟의 土器에서 보이는 것 같은 뚜렷한 積輪法使用의 痕跡을 볼 수 없다. 器形은 完形이 없어 알 수 없으나 廣口平底器였다고 생각되며 Loc. 2에서 發見된 器底의 底徑은 八cm였고 바다는 周圍가若干 밖으로 꺾여 나온 듯한 平底인 器의 內面은 卵殼內部처럼 매끈한 圓形을 이루고 있다. 口緣部는 外反되지 않고 直立으로 끝났고 間間 口緣直下 一cm未滿의 位置에 突刺孔이 뚫려 있는 것이었다. 이런 突刺孔은 우리나라의 다른 地方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르 河地方 石器時代 土器에서도 看取되며 이 兩者를 갑자기 連結시킬 수는 없더라도 興味 있는 事實이다.

何如든 여기 無文土器는 楊州 水石里土器와 비슷하면서 楊州에서처럼 完全한 平底器나 또는 圓底器가 없으며 表面處理도 楊州것같은 壓文도 없고 全體의 楊州 水石里土器보다 古式인 것이 틀림 없다. 이러한 點은 石器에서도 느껴진다.

櫛文土器片은 採集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水石里의 境遇에서도 매우 稀少하였으며 數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採集 못한 것 같다. 水石里와 마찬가지로 石器時代 末期에 이르러서 櫛文土器와 接觸해서 생기는 말하자면 「變形櫛文土器」가 여기 欣岩里에서도 나오는 모양이다.



石器는 玄武岩,

安山岩, 砂岩 등의 礫石을 利用한 打製石器에 種類로는 石斧와 雙器의 들이 있다. 石斧는 큼직한 破裂面을 가진 粗製 全打製器며 磨製法은 全히 使用되고 있지 않다. 이 點은 楊州 水石里土器보다 古式이다. 다만 모두 破品이어서 雙部의 形態나 全形을 밝힐 수 없다. 雙器는 亦是 礫石의 剝片을 利用한 것인데 廣州 漢沙里 櫛文土器遺蹟에서 본 것 같은 精良한 것이 아니고 技法이 未熟한 點이 눈에 띈다. 漢江畔의 一連의 遺蹟과 마찬가지로 그 地域에서 나오는 江邊의 礫石을 利用한 漢江石器文化에 包含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이 山에 올라간 洞里的 一少女가 Loc. 2 下部에서 粘板岩으로 된 磨製石鏃一個를 採集한 것은 特記할 만하다. 이 石鏃은 形이며 매우 精巧한 製作인데 岩寺里의 櫛文土器遺蹟에서 이런 形式의 石鏃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이 欣岩里遺蹟은 櫛文土器文化와 接觸을 가지고 있던 漢江畔의 石器時代末期 無文土器遺蹟의 하나이며 그 時代는 石器時代末期라고는 하나 楊州 水石里같은 最末期의 遺蹟보다는 實年代에 있어서 좀 올라가는 遺蹟이라고 보여진다. (一九六二, 三, 五日)

大象二年銘 石造菩薩立像

秦弘燮

昌德宮內 倉庫를 調査하다가 本像이 눈에 띈었다. 本像은 오래전부터 李王職에 所藏되었던 것인데 傳來品은 아니고 地方에서 發見된 것이 李王職에 所藏되어 保存된 것으로 發見場所나 發見經緯에 對하여는 一切 알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이 地下出土品인지 傳世品인지도 알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入手經緯도 全然 알 수 없다고 한다.

石質은 一種의 灰色 蠟石이며 밑에는 方形臺가 있고 그 위에 仰伏蓮이 連接한 楕圓形 蓮臺위에 正面 直立한 像이다. 頭上에는 三面的 高冠



을 썼는데 周緣에는 C字 倒置形의 火焰이 있다. 冠 밑에는 環帶가 있고 中央前面에 花紋이 있다. 環帶 밑에는 寶髮이 보이고 兩側에서 늘어진 寶髮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顔面은 比較的 긴편인데 눈은 半開하고 兩眉는 半月形이다.

입가에는 微笑를 띠었고 鼻梁은 얇은 편이다. 목은 긴편이지만 三道가 없다. 목에는 數條의 목걸이를 걸었고 腹前에는 큰 花瓣을 두고 이것을 中心으로 上下로 各二條의 連珠裝飾이 굽게 表示되었다. 이 裝飾 뒤로 二條의 帶紐가 길게 늘어져 끝에는 술로 表示되었다. 天衣는 두어 개에 걸렸으며 連珠裝飾과 平行되게 前面으로 늘여졌다가 다시 두 팔에 걸쳐 兩側으로 길게 내려와서 蓮臺에 까지 이르고 있다. 胸前의 목걸이 밑으로 天衣의 一端이 보이고 腹部以下에는 裙衣가 있는데 褶皺이 二處에 나타나 있다. 兩手는 이미 一切斷亡失되었으며 右手는 施無畏印으로 後補되었다. 따라서 元來의 手印은 알 수 없고 兩足은 前面을 向하였다. 背面에서 數條의 衣文線이 보일 뿐 細密한 表現은 없고 다만 下部 衣端과 裙帶위를 덮은 部分에서 주름을 나타냈을 뿐이다. 後頭部에는 長方形 突起가 있어 光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蓮臺에는 潤瓣 重瓣의 蓮花가 上下로 表現되었는데 瓣端은 若干 들러 있고 下部 蓮瓣은 中央에 縱線이 陽刻되었다. 지금 全面에 胡粉을 塗裝했던 자리가 남아 있으며 裙帶以下部分에는 赤色 塗料가 全面에 남아 있고 胡粉은 그 위에 칠해졌던 듯하다. 蓮臺 밑 方臺 前面에는 다음과 같은 造像銘이 十一行, 一行二字 乃至三字씩 陰刻되었는데 字體는 楷字이다.

大象「二年」八月五日西城「郡守」者慕「悟敬」造石「像一區」永久
供養

顔面에는 北魏樣式의 餘韻을 남기고 있으나 強勁한 風이 없어졌고 身部에 모델링도 腦部가 앞으로 내밀려 新樣式의 埴頭를 보이고 있다. 特別 莊嚴具에 있어 齊周 乃至는 隋代 樣式을 보이고 天衣의 垂下로 隋代 樣式에 가까워졌다. 全體의 彫刻手法도 優雅한 風을 엿볼 수 있다. 造像銘에 보이는 「大象」은 北周末 靜帝의 年號로서 그 二年은 靜帝二年으로 (新羅眞平王二年, 西紀五八〇) 翌年에는 隋에게 亡하고 있으며 이 年號는 不過一年밖에 使用하지 않았다. 本像의 樣式 手法도 銘記의 年號와 合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記銘에의 「西城郡守者慕悟」이 누구인지 究明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 있다.

끝으로 本像이 造像樣式이나 造像銘으로 보아 中國에서 造成되어 傳來된 것이라는 點은 곧 짐작되는데 그 入手經緯가 全然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如何한 經路를 밝아 現位置에 까지 오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小像이나 만키 運搬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을 것이지만 傳來된 時期에 對하여도 速斷을 내리기 어렵다.

筆者는 아직 「大象」銘의 佛像을 보지 못하였다. 本像은 齊周代 末期에 있어 隋樣式에의 移行을 보여주는 좋은 資料가 될 뿐 아니라 「大象」銘佛像의 新例로서 重要視된다.

- 全 高 六七・三 cm 肩 幅 一五 cm
頭 高 一六・二 cm 身 高 三九・三 cm
蓮臺高 五・七 cm 方臺高 五・八 cm
方臺幅 二一×一八 cm

白磁燈器具 數例

申 榮 勳

韓國電力株式會社所藏 古燈器具는 現在 約千餘點 남아 있으며 原來는